

Petrobras, 아시아 시장공략 본격화

Nansei Sekiyu 인수 10억달러 투자 2010년 가동 ... 세계 최대기업 부상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가 앞으로 4년 사이에 세계 최대규모의 에너지 생산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오키나와(Okinawa) 소재 Nansai Sekiyu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Tokyo를 방문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Nansei Sekiyu 인수를 계기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4년 사이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기업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는 Nansai Sekiyu 인수 및 향후 운영을 위해 1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경부터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국 산유국이 일본에서 정유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Nansei Sekiyu는 미국 ExxinMobil의 자회사인 Tonen General Sekiyu가 87.5%, Sumitomo상사가 12.5%를 출자한 기업으로 Petrobras는 Tonen 보유 지분을 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Sumitomo상사는 기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Petrobras의 Nansei Sekiyu 인수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etrobras는 최근 해외 유전개발 및 정유능력 확충을 위해 150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Nansei Oil 인수도 계획의 일환이다

가브리엘리 회장은 “Petrobras의 해외시장 공략 전략에서 아시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Nansei Sekiyu를 거점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etrobras는 석유 뿐만 아니라 에탄올(Ethanol) 등 바이오에너지의 아시아 판매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08>